**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께**

 평안을 전합니다.

 5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금식 기간에 들어가면서 평소에는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이 때에 종교적인 사람들과 편승하여 모든 교제의 일정을 금식 기간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동역자님들께 지난 편지에 기도 부탁을 드렸던 제목들의 응답을 나눕니다. 여러 상황으로 몇 년을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이사를 지난 주에 했는데, 5월에 일정이 많아서 이사짐을 싸지 못하고 포장 이사 회사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얇은 검정 쓰레기 봉투에다(비닐 냄새가 남) 옷을 담고,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전화 세탁기…… 하루에 한가지 일을 처리하면서 모든 절차를 다 거치는데 3주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팀원 가정과 돕는 손길들이 있어서 그나마 원활했고 동역자님들의 기도로 이사를 잘 했습니다. 새로운 거처는 버스 정류장 가까운 3층(한국 4층)인데 문화원도 걸어서 5분이라 한식과 한복을 통해 교제하는 영혼들을 위해 유용하게 집이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에 국제교회 안에서 드리는 9시 한인예배에 참석하고 오후에 현지인들과 교제하는데 3주 전에 U 부인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야외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에 왔을 때 같이 한국교회 예배에 참석도 했고 성경도 같이 읽었기 때문에 교회와 성경에도 마음이 열려 있고, 지금 이 땅의 상황과 종교책에 회의를 갖고 있는데, 어제 이사한 집에 초대했을 때 대화 하면서 회교에서 여자의 지음과 부정적 가르침에 불만이라고 하여 성경의 창세기를 천지창조 부분을 읽으며 부인의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자주 복음으로 교제하면서 성령께서 예비한 시간에 예수를 구원자로 시인하고 영접 할 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식 세미나와 문화원의 강의는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대학교 학생들에게 2주 동안 한식을 가르치면서 2kg 체중 감량과 한국에서 오신 저명한(?) 한식 선생님의 태도에서 저를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2주 전에는 한국어와 한국을 소개하는 행사를 하는 국립기술고등학교에 조리학과가 있어 참석했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교육부에서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하여 시행을 논의 과정에 있습니다) 동역자님들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따라 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김에스더 드립니다.

**기도제목)** 1) 금식 기간을 교제하는 영혼들과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2) 거주 비자 신청 절차와 결과를 위해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음)

3) 어머니의 병원 적응과(3개월에 3곳 옮김) 돌보는 가족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지고 있습니다)